

# ‘원정 강자’ 전남, 집 밖에서 축배 든다

〈시즌 10승10무2패〉



K리그2 팀 첫 FA컵 우승을 노리는 전남이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와 결승 2차전을 갖고 우승팀을 가린다. 사진은 지난 11월 24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FA컵 결승 1차전에서 전남 외국인 선수 발로렐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슈팅을 하는 모습. <전남드래곤즈 제공>

## 11일 대구FC와 FA컵 결승 2차전...2점차 승리엔 우승

‘원정강자’ 전남드래곤즈가 FA컵 우승을 위해 적지로 떠난다. 전남은 11일 오후 12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을 갖고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전남은 지난 11월 24일 안방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이날 4503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지만 아쉽게 14차례의 슈팅이 모두 빗나가면서 승부

를 되돌리지 못했다. 대구행을 준비하는 전남의 발걸음은 가볍다. 올 시즌 전남은 ‘원정 강자’로 눈길을 끌었다. ‘잔물수비’로 상대를 봉쇄하면서 리그와 FA컵 등 22경기에서 10승 10무 2패의 놀라운 성적표를 작성했다. 정재희의 가세도 든든하다. K리그2에서 김천상무의 우승을 이끌었던 정재희가 복무를 마친 뒤 최근 팀에 합류했다. 출격 준

비는 끝났다. 오른쪽 윙포워드인 정재희가 기존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준다면 전남의 화려 고민을 풀 수 있다. 정재희에게도 이번 경기는 특별하다. 2차전에서 승부를 뒤집고 전남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정재희는 K리그2 우승 트로피에 이어 FA컵 우승트로피까지 들어 올리게 된다. 전남은 올 시즌에도 아쉽게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4위로 정규리그를 마감한 뒤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서 0-0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격 도전을 멈췄다.

이번 경기는 길었던 2021시즌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전남은 2021시즌 마지막 경기인 FA컵 결승 2차전 승리로 정규시즌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또 전남이 우승하면 K리그2 구단 최초의 FA컵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참가라는 새로운 기록도 만들어진다. ‘원정 강자’인 전남과 반대로 대구는 안방에서 강했다. K리그2 3위를 기록한 대구는 올 시즌 홈에서 열린 21경기에서 10승 6무 5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FA컵에서 수원FC, 포항스틸러스, 울산현대를 연

달아 꺾고 결승까지 오른 ‘원정강자’ 전남이 대구의 홈 강세를 누르고 2007년 이후 14년 만에 4번째 FA컵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은 팬들이 편하게 2차전 응원에 나설 수 있도록 원정버스를 마련해 ‘우승원정대’를 꾸린다. ‘우승원정대’는 용삼(www.jdfcshop.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원정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또 이번 경기는 100%접종자구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접종자구역 출입이 가능한 사람만 원정버스에 오를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키움 이정후, KIA 이의리, KT 강백호, KT 고영표, KT 이강철 감독.

## KIA ‘특급 루키’ 이의리 ‘특급 스타’ 반열에

조아제약 대상 신인상...KT 강백호 ‘최고의 별’·이강철 감독상

KIA 타이거즈의 ‘특급루키’ 이의리가 2021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이의리가 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차지했다. 광주입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이의리는 19경기에 나와 94.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61, 4승 5패를 기록했다. 피안타율(0.204)과 이닝당 출루허용(1.32)도 수준급이었다.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한 그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에도 승선해 두 경기 10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 1위(18개)에도 등극했다. KT 강백호는 올 시즌을 빛낸 ‘최고의 별’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강백호는 타율 0.347(516타수 179안타), 16홀런, 102타점, 출루율 0.450, 장타율 0.521을 기록하며 KT 타선을 이끌었다. 최고투수상은 평균자책점 2.92, 11승 6패를 기록한 KT 고영표에게 돌아갔다. 고영표는 국내 투수 중 가장 많은 21번의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고, 이닝당 출루허용(1.04), 9이닝당 볼넷(1.46개), 평균 소화 이닝(6과 3분의 1이닝) 모두 1위에 올랐다. 첫 부자(父子) 타격왕의 위업을 이룬 키움 이정후는 최고타자가 됐다. 올 시즌 123경기에 출전한 이정후는 타율 0.360(464타수 167안타)로 1위에 등극, 아버지 이종범(1994년-타율 0.393)의 뒤를 이어 타격왕에 올랐다. 44세이브를 수확한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최고구원투수상을 차지했다. 그는 올 시즌 역대 최초로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했고, 최고령 단일 시즌 40세이브 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감독상은 KT의 통합을 우승을 이끈 이강철 감독에게 돌아갔다. 우승을 지원한 KT는 프런티어를 받았다. 또 두산베어스의 정재훈 투수코치와 외국인 투수 미란다가 각각 코치상과 기록상을 차지했다. SSG 추신수는 ‘드림 랜딩 프로젝트’를 통해 모교에 6억원을 기부하고 연구 지역 야구 꿈나무를 위한 지원을 하면서 선행조아상을 받았다. LG 김대유와 한화 포수 최재훈은 각각 기량발전상과 수비상을 받았다. 올 시즌 총암고의 대통령배·청룡기 2연패를 이끈 이영복 감독, 에이스 이주형(NC)은 아마지도자상과 아마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英 언론 “손흥민도 양성”... 토트넘 비상

렌과 경기·UECL 조별리그 예정대로... EPL 일정은 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스타드 렌(프랑스)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조별리그를 예정대로 치를 전망이다. 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스포츠뉴스 등에 따르면 UEFA는 이날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훗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렌의 2021-2022시즌 UECL 조별리그 경기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BBC 등 현지 언론은 토트넘에서 1군 선수 6명과 코치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의 손흥민(29)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와 함께 에메르송 로알라와 브리안 힐, 루카스 모라,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이 확진자로 언급됐다. 토트넘 구단이 추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는

확진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10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은 10일 렌전은 물론 12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17일 레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의 공백은 토트넘에 큰 손실이지만,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UEFA는 팀당 골키퍼를 포함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13명 이상일 경우 경기를 진행한다. 다만 EPL의 경우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EPL은 2021-2022시즌 각 구단이 14명 이상의 출전 가능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기를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UEFA보다는 비교적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단이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서 검토해 결정을 내린다. /연합뉴스

## 내홍 겪은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 선임

내홍에 시달린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이 배테랑 지도자 김호철(66·사진) 전 남자배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기업은행은 8일 “신임 사령탑으로 김호철 감독을 선임했다”며 “오는 18일 흥국생명과의 경기부터 김 감독이 팀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주전 세터 조송화(28)가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김사니(40) 전 코치도 조송화와 함께 팀을 떠났다가 구단의 설득에 복귀했다.

기업은행은 11월 21일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며, 김사니 전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승격했다. 김사니 전 감독대행은 11월 23일 흥국생명전과 27일 GS칼텍스전, 2일 한국도로공사전 등 3경기만 지휘한 뒤 자진해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